

현대차, 차량 통신 반도체 전문기업 '오토톡스'에 투자

상호협력 위한 전략적 투자 통해 차량용 통신 칩셋 기술 공동 개발 미래 커넥티드카 '두뇌' 기술 협업 가속

현대자동차가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설계 업체 오토톡스(Autotalks)에 투자하고 미래 커넥티드카 개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오토톡스에 전략 투자를 단행하고, 오토톡스와 함께 커넥티드카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통신 칩셋(반도체 집적회로 : Chipset)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3일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커넥티드카가 차량 내 외부와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날리는 컴퓨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판단 제어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업이 오토톡스다. 오토톡스는 2008년 이스라엘에서 설립

된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및 IT 업체들과의 다양한 협업, 그리고 실증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강력한 커넥티비티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오토톡스와 차세대 커넥티드카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기술 협력은 현대차가 개발 중인 커넥티드카에 최적화된 통신 반도체 칩셋 개발 분야에 집중된다. 커넥티드카의 통신 칩셋은 차량 외부의 무선통신과 내부의 유선통신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



현대자동차가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설계 업체 오토톡스(Autotalks)에 투자하고 미래 커넥티드카 개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한다. 이를 통해 커넥티드카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현대차는 오토톡스와의 협업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론 등 계열사들을 적극 참여시켜 그룹 차원의 미래 기술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오토톡스의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칩셋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분야에서도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체에 IoT 기술이 적용돼 도시 전반의 효율화와 지능화가 가능한 기술 주도형 도시로, 차와 도로가 통신하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상의 테스트 베드로 꼽힌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은 날씨 상황에서도 차량이 주변 차량 및

교통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해가며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 받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도 현대차는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업 모색을 통해 세계 최고 기술력이 집약된 커넥티드카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현대차 관계자는 "커넥티비티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분야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등 신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 영역"이라며 "차량용 통신 칩셋 분야 선도 기술을 보유한 오토톡스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토톡스의 하가이 지스(Hagai Ziss) CEO는 "글로벌 탑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의 이번 투자를 계기로 더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오토톡스의 기술 로드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전북농협지역본부, 고산면
면지발간 자금조성 위한
일일주점 성황리에 마쳐

고산면 농업경영인 단체(회장 임경호)는 지난달 29일 고산체육공원 일원에서 고산면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문화와 역사 발자취를 담고자 추진 중인 면지 발간 자금조성을 위한 일일주점을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산농협 여성조직인 농가주부모임, 고흥주부모임, 여성야구팀과 고산면 부녀회, 고산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작년 1월 출범한 면지발간위원회'는 소중한 자금 등을 기부 받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증을 통해 2018년 9월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고산면은 본래 고산군지역으로 읍내라 해서 군내면 또는 현내면이라 불렀으며, 현재의 '읍내리·서봉리·율곡리·어우리'를 관할하였고 1914년 3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면에 속해 있던 남봉리·화정리·안아리를 병합하여 옛 고산 고을의 이름을 따서 고산면이라 하여 전주군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0월 삼기면의 '삼기리·성재리·오산리·소항리'를 병합, 현재의 완주군 고산면으로 개편됐다. /김영태 기자

농협물류, '예담채 복숭아' 제값받기 위해 응원
우리농업인·소비자함께 하는 '상생마케팅' 진행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 '예담채' 홍보 및 전북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 간 전국 주요 농협 판매장 등에서 '전라북도 예담채 복숭아 특별판매전'을 농협물류에서 후원하는 '상생마케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복숭아 소비촉진을 위해 농협물류가 후원,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전주농협, 춘천농협,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예담채 복숭아 상생마케팅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주요 농협판매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복숭아(1.2kg) 한 박스당 1,000원씩 할인 판매하고 있다. 농협물류는 농축산물 물류혁신을 선도하는 종합물류 협동회사로 상생협력 후원금 200만원을 지원 및 전북 복숭아 소비촉진을 위해 농협에 전담했다. 김문규 농협물류대표이사는 "복숭아 생산량 증가로 제값받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상생마케팅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후원으로 복숭아 소비촉진에 도움이 되



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농업인을 돕기 위해 상생마케팅에 적극 참여해 준 농협물류 임직원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수급안정을 통해 농가의 경영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 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는 상생협력의 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상생마케팅'은 기업의 후원을 통해 농업인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기업은 광고효과와 사회공헌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소비자-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환전 송금 페스티벌 이벤트 실시

여름 휴가철 앞두고 해외여행 준비하는 고객 대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 대상 9월 30일까지 3개월간 'HAPPY SUMMER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페스티벌 기간 중 건당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또는 송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권 100만원권(1명), SFC이프라권 1만원

권(500명)을 '올원뱅크 앱'의 외화조르기/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 외화를 선물하는 고객을 대상,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모바일 상품권(100명) 등 총 601명 추첨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원뱅크 앱'을 이용해 환전 시 미달러화(USD)와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는 90% 기타 통화는 40%의 환율우대도 제공한다. /김영태 기자

1달러만 환전해도 ▲농협물류에서 3만원 구매 시 3천원 할인 ▲와이파이도시락(포켓 와이파이) 15% 할인 ▲공항철도 직통열차 1,500원 할인 등, 다양한 제휴서비스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NH농협은행을 해외결제자·유학생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하는 고객은 이벤트 기간 동안 전신료(8,000원)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소성도 상호금융 대표이사
집중호우 피해복구·취약지구
점검 위해 전북 방문

전북농협은 3일 소성도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제7호 태풍 복상에 따른 강한 비파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재해 취약지구 점검을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소성도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유재도 본부장, 심민섭 남원시지부장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농수로 범람 및 밭물유입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남원시 보절면 양계농장을 찾아 축산인을 위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소성도 대표이사는 "제7호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강한 비파와 비가 예상된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업인 안전과 농업관련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공정위, 삼성그룹 현장조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 포착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나 삼우종합건축 등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3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

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부당지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업체로 설립됐다. 이후 일감몰아주기 도입 직전인 2013년, 삼성 웰스토리는 물적분할을 통해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으로, 지난해 1조7천억원의 매출액 중 1/3 이상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통

해 이뤄졌다. 특히 웰스토리의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이 배당으로 지급, 총수입가의 수입원이 됐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59.92%인 1274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이들 회사는 총수입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지원금지 규제는 적용 받을 수 있다. 사익편취행위 규제는 총수입가가 상장사 기준 20%, 비상장사 기준 3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